

여성 정치 후보자들은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는가

: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 비교 분석*

박지민(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자연(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020년 21대 선거까지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 운동, n번방 사건 등 여성 관련 이슈가 많이 일어나면서 ‘여성’은 한국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잡았다. 그렇다면 주요 언론의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선거 보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본 연구는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성 후보자 관련 언론 보도를 제목, 소재, 성격, 보도 정향, 개인적 성향 프레임, 이슈 프레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내용 분석 결과, 여성 후보자가 단순언급되는 비중이 줄고 제목에 거명되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여성 중심적 보도가 늘어나는 등 작지만 희망적인 변화들이 발견되었다. 소재면에서도 이슈/정책과 관련된 기사에 언급되는 경우가 늘었고, 연성 기사에 언급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여성 후보자가 거론된 기사는 논조면에서 대체로 중립적이었고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도 늘었다. 이슈 프레임은 남성적 이슈보다 여성적 이슈와 관련해 언급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외국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 성향 프레임에 있어서는 여성 후보자들이 대체로 중성적으로 묘사됐고, 흥미롭게도 여성적 성향보다 오히려 남성적 성향으로 설명된 경우가 많았다. 21대 선거에는 특히 ‘강인한

* 이 논문은 2020년도 가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GCU-202003420001). 연구 분석 과정에서 도움을 준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준수, 원찬희 학생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합니다.

** jimin3473@naver.com, 제1저자

*** leej@gachon.ac.kr, 교신저자

투사' 프레임이 가장 많이 쓰이는 등 남성성의 수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도 여성 후보자에 대한 보도 양태는 대체로 유사했으며 어느 한쪽이 눈에 띄게 여성 후보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어: 여성, 국회의원, 선거, 후보, 프레임, 젠더, 언론, 미디어

1. 문제 제기

‘여성’은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82년생 김지영’출간, 2018년 미투 운동, 낙태죄 폐지 집회, 혜화역 시위, 2019년 n번방 사건 등을 거치며 페미니즘은 한국 사회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역대 최다인 209명의 여성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 각각 77명, 28명을 공천한 국가혁명배당금당과 민중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비례정당 더불어민주당 포함) 32명, 미래통합당(비례정당 미래한국당 포함) 26명, 민생당 4명, 정의당 16명, 우리공화당 8명 등 대부분의 당에서 지역구 여성 후보를 배출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영향이긴 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역대 최고로 많은 209명의 여성이 후보로 등록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 정의당 1명 등 주요 정당 공천을 받은 여성 29명이 당선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자 중 11.5% 비율로 역대 최고 수치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의회 내 여성 비율(2017년 기준 28.8%)에 비하면 한국 여성 의원은 지역구 당선자 29명과 비례대표 당선자 28명을 합쳐도 국회 내 19%로 약 10%포인트 낮다.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이슈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뜨거웠지만 그럼에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아직 국회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중 절반은 지역구 출마가 아닌 비례대표제에 힘입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역

구 당선자들도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았기에 당선이 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당초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각각 12.6%, 10.2%에 그쳤다. 정당의 도움 없이 무소속으로 당선된 여성은 없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선거였으나 소수 집단의 비례성이나 대표성의 확대 대신 오히려 거대 정당의 의석점유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다(이현출, 2020).

그럼에도 이번 선거 결과는 한국 정치에서 여성의 달라진 위상과 잠재력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일단 지역구 당선자 수가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앞섰다는 점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거대 정당들의 여성 공천이 저조한 와중에도 지역구 출마 여성들의 당선율 자체가 높아진 것이다. 여성 정치를 내세우며 선거일 38일 전에 창당한 여성의당이 21만 표 가까이 득표한 것도 여성 정치의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이현출,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박사는 “여성의당 정당 투표수가 20만을 넘긴 것이나, 페미니즘 가치를 내건 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등 여성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번 선거를 한국 정치지형의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BBC, 2020).

그렇다면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언론 보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역대 최다 여성 지역구 후보자 및 당선자를 낳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여성 정치 후보자들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20대 선거 때에 비해 진일보했을까? 본 연구는 이 같은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정치 기사 중에서도 주목성이 가장 높은 선거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여성 후보자들에 대한 언론 보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2. 문헌 연구

1) 여성 정치인에 대한 보도 불균형 문제

언론 보도는 정치 후보자들이 대외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 토대이다(양정혜, 2006; 윤영민·김경희, 2008). 국민들은 직접 접할 기회가 적은 정치인이나 후보들을 기사 속 이미지로 알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기사화되는지 뿐 아니라, 어떤 논조로 보도되는지(McCombs, Llamas, Lopez-Escobar, & Rey, 1997), 얼마나 당선 가능성이 있고(Schmitt-Beck, 1996; Van der Meer, Hakhverdian, & Aaldering, 2016), 어떤 성격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지(Aaldering, Van der Meer & Van der Brug, 2018; McCombs et al., 1997) 등이 모두 후보자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Khan & Goldberg, 1991, 1994).

언론이 여성 정치인들을 보도하는 방식은 해외에서 1990년대 칸의 일련의 연구(e.g., Khan & Goldberg, 1991; Kahn, 1992)를 시작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한 연구 분야로 정립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뤄진 초기 연구들은 언론의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차별적 보도행태를 크게 양적 불균형과 질적 불균형 문제로 나누어 지적한다. 양적 불균형은 여성 후보자들이 남성 상대들에 비해 양적으로 적게 언론에 보도되고 발언 내용도 덜 인용되며 남성보다 뒤에 언급되거나 더 짧게 언급되는 식으로 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을 말하고, 질적 불균형은 언론이 여성 후보의 공적 활동이나 정책보다 사생활이나 성향, 배경, 외모, 가정에 초점을 맞춘 신변잡기식 보도를 하거나 당선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경마식으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Kahn & Goldberg, 1991; Devitt, 1999; 양정혜, 2002).

2) 보도 불균형의 주요 원인들

보도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여성 정치인의 희소성, 둘째, 언론인의 네트워크, 셋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지목된다(Van der Pas & Aaldering, 2020). 첫째는 정계가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장악해온 영역이었고 여성 지도자가 드물다 보니 언론이 여성 정치인을 희소하고 이색적인 대상으로 남성과 달리 취급한다는 것으로 칸이 주로 제기한 가설이다. 둘째는 정치부 기자 대부분이 남성이고 이들이 접하는 취재원, 정보원들도 주로 남성이어서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보도에 반영된다는 설명이다(Hooghe, Jacobs, & Claes, 2015). 즉, 여성의 역량이나 당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남성 기자들의 선입전이 여성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보다 사생활이나 성향, 외모에 대한 신변잡기식 기사, 혹은 당락 예측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경매식 기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원인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이는 남녀가 서로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성은 공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여성은 사적인 분야에 더 적합하다는 믿음을 말한다. 주로 남성이 바깥일을 하고 여성이 집안일과 양육을 맡던 전통 사회의 노동 양식에서 유래되었다(Eagly, 1997). 전통적인 성 역할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성은 정직하고 온화하고 공감을 잘 하는 한편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감정적이며, 남성은 강하고 거칠고 목표지향적이고 자신감, 결단력, 독립심이 있으며 지적이

고 이성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Alexander & Anderson, 1993; Banwart & McKinney, 2005; Huddy & Terkildsen, 1993a)¹⁾. 정치는 역사적으로 남성의 전유물로 간주되어 왔으며 남성적 성향을 갖춘 사람이 지도자로 적합하다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분야다. 언론도 일반적으로 정치인에 대해 보도할 때 소위 남성적 성향 위주로 보도한다. 하지만 유독 여성 정치인을 묘사할 때에는 소위 여성적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를 많이 씀으로써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여성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Meeks, 2012). 또한 남성 후보는 공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여성 후보는 개인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Kahn, 1992; 1994). 이 같은 보도는 여성 후보가 정계보다 가정에 어울린다는 생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당선되기 어렵게 만든다(Daughton, 1994; Heldman, Carroll, & Olson, 2005; Huddy & Terkildsen, 1993b; Meeks, 2012; Witt, Paget, & Matthews, 1995).

3)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한 문제들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은 교육, 보건, 환경,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성평등 등 소위 ‘여성적(feminine)’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슈를 잘 다루고, 국방, 외교, 경제 같은 소위 ‘남성적(masculine)’

1) 성 역할 이론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전통적 전자를 ‘여성적 성향’, 후자를 ‘남성적 성향’이라고 칭하지만, 위의 성향들이 반드시 특정 성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용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성별의 정치 후보에게 특정 성향의 이미지가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해당 선거 맥락에 따라 다르며 어느 성향이 다른 성향보다 우월하다는 판단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슈는 남성이 잘 다룬다'는 정치적 능력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도 이어진다. 이 때문에 언론은 여성 정치인들을 실제 전문성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여성적 이슈와 연관해서만 인터뷰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다(Major & Coleman, 2008). 여성으로서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여성 이슈에의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여성 정치 후보들도 있다. 좀 더 '집안 살림'같은 역할로 인식되는 지방 자치단체 선거의 경우 특히 그렇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중은 남성적인 이슈들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을 여성 이슈에만 한정 짓는 보도는 여성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Meeks, 2012). 기사의 양적 불균형이나 논조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나오는 반면, 성적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향, 이슈 보도 등의 질적 불균형 문제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Banwart, Bystrom & Robertson, 2003; Van der Pas & Aaldering, 2020). 지금까지 영미권에서 출판된 66개의 논문을 통해 3,500명의 여성 정치인들에 대해 75만 건의 언론 기사를 메타 분석한 밴더파스와 앨더링(2020)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후보는 남성 후보에 비해 사생활에 관해서나 여성적 성향이나 여성적 이슈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Van der Pas & Aaldering, 2020).

이 같은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해 여성 후보들은 스스로를 남성적으로 프레임하기도 한다.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성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하거나, 공적인 석상에서 정장을 착용한 사진만 공개하는 한편 사적인 면모는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거칠고 강인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다(Lee, 2013; Lee & Lim, 2016). 그러나 성적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이 같은

시도는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역할일치이론(role congruit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집단이나 그 소속 일원이 보이는 특성이 그 집단에게 기대되는 특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Eagly & Karau, 2002; Everitt, Best, & Gaudet, 2016). 정치 지도자 영역에 도전함으로써 이미 전통적 성 역할을 거스르고 있는 여성이 나아가 남성적 성향과 행동을 보일 때 성적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호감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기자들은 남성이었으면 문제 삼지 않았을 행동을 여성 정치인들이 하면 유별나고 튀는 행동으로 과하게 부각하거나(Gidengil & Everitt, 1999, 2000, 2003), 복장이나 언행을 문제 삼아 부정적 논조로 전하기도 한다(Major & Coleman, 2008; Norris, 1997). 이 같은 상황은 여성 정치인들에게 ‘여성스러워도 불리하고 남성스러워도 불리한 이중고로 작용한다(Lee, 2013).

4) 여성 정치인 관련 국내 선행 연구

국내에선 여성 정치인 및 후보자나 그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대규모로 분석한 사례가 드물다. 전반적으로 선거 보도는 남성 후보 중심이었으며, 후보자 검증이나 공약보다 정당 간 다툼이나 전략 전술, 판세 예측에만 집중하는 경마식 보도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치중한 편파적 보도로 비판을 받아왔다(김춘식·양승찬·이강형·황용석, 2012; 김영욱·김위근, 2007; 양승찬, 2007). 2000년 여성부가 신설되고 최초로 여성 국회의원이 10명을 넘기면서 비로소 정치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여성 정치인 보도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다. 박근혜, 한

명숙, 이정희 등 일부 여성 정치인들이 당 대표로 활동하고 대선에 출마하거나 장관에 임명되면서 한국 정치사에 소위 '여성시대'를 열었고(정현욱·김선남, 2012), 이들로 인해 학계에서도 여성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면이 있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는 영미권의 연구 결과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통적으로 가정에 충실한 현모양처를 이상적 여성상으로 여겨왔으며, 이 같은 유교 문화가 언론에도 반영되어 왔다(강주현, 2020). 양정혜(2002)는 언론이 여성 정치인을 일관되게 주변화시키고 이미지와 관련된 면모는 부각시킴으로써 여성 후보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여성으로 재현되는 '상징적 소멸'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시사월간지와 여성월간지의 여성 정치인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현경미, 김원용(2005)는 여성 정치 후보가 늘어난 만큼 여성 정치인 관련 언론 보도가 양적으론 늘었지만, 여성 정치인의 인간성과 외모 등의 이미지를 강조하거나 가사와 연결 지어 정치인보다 여성으로 부각시키고 호기심의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면에서 질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보도를 분석한 윤영민·김경희(2008)는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 비해 방송 3사 프라임타임 뉴스에서 더 적은 수의 기사에서 중심인물로 보도되고 발언이 더 적게 인용되고 순서상 더 후에 언급되었다고 밝혔다.

김훈순(1997)은 여성에 관한 언론 보도가 수적으로 적고 질적으로도 사소하게 취급되는 '여성의 부재' 현상은 지배계층에 여성이 드문 우리 사회에서 당연한 결과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언론사의 남성 지향적 보도속성이 남성 정치인은 심각하고 중요한 경성 뉴스에, 여성

은 인간적 흥미를 일으키는 가벼운 연성 뉴스에 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대다수 언론사가 남성중심주의와 유교적 가부장주의가 결합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으며 여성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 뉴스 생산 과정에서 여성 소외가 나타난다는 분석도 나온다(김경희, 2017; 김세은·홍남희, 2019). 종합해 보면 여성 정치인이나 후보들은 주로 여성적 이슈나 여성적 성향에 관련해 보도되고, 경성 기사보다 연성 기사에 등장하고, 부정적인 논조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 후보에 비해 덜 중요하게 취급됐다고 볼 수 있다.

5) 언론과 정치 환경의 변화

그렇다면 젠더 이슈가 뜨거웠던 2016년과 2020년 사이 선거 보도에는 유의한 변화가 있었을까? 첫째, 남녀 정치인에 대한 보도 불균형의 원인이 여성 정치인의 희소성이나 정치 기자의 남성 위주 네트워크에 있다면 여성의 정계 및 언론계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보도에도 변화가 있었을 수 있다. 즉, 과거에 정치 관련 보도에서 여성이 양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면, 갈수록 그 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 방송 보도를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메인 뉴스 프로그램 등장 횟수나 보도되는 순서, 화면 등장 분량(발언 시간) 등을 잴 대로 중요하게 다뤄진 정도를 측정했다. 신문의 경우에는 언급된 기사 수나 기사 성격(경성/연성)뿐 아니라 제목에 이름이 언급되었는지 여부도 해당 후보의 무게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온라인 뉴스 소비가 중심이 된 요즘 많은 이들이 제목만 보고 기사 내

용을 판단하며(이준호, 2015), 제목에 누가 언급되었는지를 보면 누구 중심으로 보도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손영준·홍주현, 2018). 19대 국회의원 선거 보도에 대해 기사 내용과 별개로 제목만 따로 분석하는 선행연구도 있는 만큼 제목 분석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김춘식 외, 2012).

둘째,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언론의 보도 양상도 줄었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영화, 드라마 등에 등장하는 여성상도 남성의 선택을 받는 미모의 신데렐라나 청순가련한 피해자, 순종적인 아내/어머니, 역경 속에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인 캔디 같은 전형적 캐릭터들을 벗어나, 저마다의 개성과 욕망을 가지고 독립적, 주체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입체적인 캐릭터들로 다변화해왔다(김훈순·김미선, 2008; 이종현, 2019). 2000년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장을 목표로 비례대표제에 여성 할당제가 시행된 이후 여성의원 비율도 꾸준히 증가했고, 정치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하는 여성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강주현, 2020).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 정치인에 대해 남성 유권자들보다도 더 적대적이어서 ‘여성이 여성의 적’이라고 칭해지던 현상도 잦아들었고, 최근에는 여성들이 여성 정치인에 대해 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여성에 대한 정책에 따라 지지 정당을 선택하기도 한다(강주현, 2020). 이에 더해 지난 몇 년 사이 강남역 사건, 미투 운동, n번방 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여성 혐오 및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이 높아졌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치에 소극적이었던 20~30대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하누리, 2018). 그 영향으로 21대 총선에는 신지예 신민주 이가현 후보 등 페미니즘을 내세

우며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들도 나왔고, 류호정·용혜인·장혜영 등 20~30대의 젊은 여성들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아 당선돼 화제가 되었다.

이 같은 사회 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여성 정치인을 부정적 논조로 보도하거나 연성 뉴스에서만, 혹은 여성적 프레임으로만 보도하는 일은 과거에 비해 줄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언론사 기사나 간부 중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여성 독자들을 고려해서라도 전과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를 기사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성 정치인이 언급된 보도의 정향과 성격, 주요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여성 정치인에 관해 소위 여성적이라고 칭해지는 성향만 강조해 소개하거나, 소위 여성적으로 분류되는 이슈에 관련해서만 전문가로 인용한 기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봄으로써 20대와 21대 선거 당시 언론 보도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6) 언론의 정치적 성향과 여성 관련 보도

언론 보도를 분석할 때 흔히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언론의 언급 여부나 재현 방식은 사회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Hall, 1982/1996; Tuchman, 1978). 따라서 언론사들도 각기 추구하는 가치와 정치적 지향에 따라 현실을 다르게 구성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뚜렷한 정치 성향을 가진 언론사들의 경우, 보도 대상이 어느 정권, 어느 정당 소속인지 여부가 보도 프레임과 논

조에 영향을 끼친다. 여성 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성별보다는 정치적 입장에 근거해 보도 프레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2006년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의원의 동아일보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문제 정의, 원인 진단, 도덕적 평가 등에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은 큰 차이를 보였지만, 이는 여성에 대한 태도 차이라기보다는 가해자인 최 의원이 보수적인 한나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입장 차이로 분석된다(김정아·채백, 2008).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수행 비서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지만 정보원 활용에 있어서 신문의 정파성이나 취재기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서현, 최낙진, 2021).

정치적 맥락이 분명치 않은 일반 여성의 경우,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도 태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뚜렷이 규명되지 않았다. 전문직 여성 관련 보도를 분석한 허명숙(2007)은 진보 언론이 상대적으로 더 친여성적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양쪽 다 과거에 비해 긍정적이고 성평등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성폭력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홍지아(2009, 2017)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쪽 다 여성의 성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가부장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성에 대한 전반적 보도 태도에서는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모두 공통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보수 언론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지배구조와 사회 체계를 유지, 강화하려는 속성이 있는 만큼, 전통적 남성상과 여성상을 재생산하는 보도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근래 불거진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서도 진보 언론은 사회 구조적 문제

로, 보수 언론은 개별적 사건으로 접근하는 차이를 보인 바 있다(함승경·최지명·김영욱, 2019). 강남역 살인사건도 한겨레, 경향 등은 좀 더 여성주의적 시각을 반영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과 혐오라는 프레임으로 확대하고 조선, 동아 등은 경찰 발표대로 여성 혐오와 무관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정의하는 차이가 나타났다(홍지아, 2017). 따라서 특정 정치색을 띠지 않는 일반 여성이 대상일 경우, 보수 언론이 좀더 전통적 사회 구조와 가치를 대변하고 진보 언론이 좀 더 여성의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여성 정치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일반 여성에 대한 보도 태도와 정당 정치인에 대한 보도 태도가 결합해 복합적인 양상을 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제각기 정치색을 지니지만,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당을 대표하는 급의 지명도 있는 여성이 아닌 이상 이들에 대한 보도는 정당 정치인에 대한 보도 태도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의 여성에 대한 보도 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연구문제들은 위와 같은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도출되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언론 보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여성 후보와 관한 언론 보도의 성격과 보도 정향, 제목, 성향 프레임과 이슈 프레임에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3.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1: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보도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1: 기사 제목에 여성 국회의원이 언급된 비율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2: 기사가 다루고 있는 소재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3: 기사 성격(경성 또는 연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4: 보도 정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5: 후보자에 대한 프레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1-6: 후보자와 관련해 다루는 이슈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1: 연구문제1의 결과에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및 기간

연구 방법은 많은 선행연구들이 선택한 내용 분석을 사용했다. 분석기간은 20대와 21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설정했다. 20대는 2016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1대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해당된다. 분석 대상은 흔히 5대 중앙일간지로 일컬어지는 5개 조간신문들의 여성 관련 기사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대표적인 보수 언론으로 한겨레, 경향신문을 대표적 진보 언론으로 분류했다. 해당 기간 동안 정치, 사회, 지역 분야의 기사를 추출한 후,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가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언급된 기사를 20대 후보자 98명과 21대 후보자 209의 이름을 한 명씩 검색해서 추가 추출했다. 21대 기사는 모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아카이브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이용해 추출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2018년부터 빅카인즈를 통해 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20대 기사 분석을 위해 직접 언론사 사이트 검색을 통해 추출했다. 20대 선거 기간 동안 빅카인즈에 올라온 중앙, 한겨레, 경향의 정치, 사회, 지역 기사는 총 5,8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성 후보자가 제목 또는 기사 내용 중에 언급된 기사는 569건이었다. 21대 선거 기간 5대 일간지의 정치, 사회, 지역 기사는 총 1만1,423건이었으며, 이 중 여성 정치 후보자가 언급된 기사는 총 731건이었다. 각각 300건씩 추려내기 위해 매 n번째 기사를 선택하는 체계적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후 중복되는 기사나 링크가 사라진 기사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된 기사는 20대 기사 241건, 21대 선거 보도 268건이었다.

(2) 분석 방법 및 분석 유목

언론 보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 연구와 프레임 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연구문제에 해당하는 분석 유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사 제목 언급

여성 후보자가 기사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인물인지 파악하는 잣대로(손영준, 홍주현, 2018) 제목에 이름이 언급되었는지 여부를 분석

하였다. 언급 유무를 분류하되, 언급이 있는 경우의 세부항목으로 단독으로 언급되었으면 ‘단독’으로, 다른 여성 후보자나 남성 후보자와 언급 시 ‘공동’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면 ‘없음’ 처리했다.

② 기사 소재

선행연구(김동윤·구교태, 2018; 김춘식 외, 2012; 박정의, 2008; 이종혁·정낙원·김세은, 2017)에서 선거 보도 소재를 분류한 방식을 참고해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기사 소재를 선거, 이슈, 정당, 후보자, 유권자, 판세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기사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를 파악해 측정했으며, 두 개 이상의 소재가 다루어진 경우 조금이라도 더 비중이 큰 쪽을 주요 소재로 선택했다.

〈표 1〉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기사 소재

분류	분석 내용
선거	선거 참여, 선거 법, 제도 개정
이슈	정책 이슈, 공약 실현
정당	정당의 캠페인 전략, 다른 정당 및 후보 공방, 정당 내 갈등, 정당 간 연합, 정당 행보
후보자	후보 등록, 후보 공약 정책, 후보 경력 배경, 후보 공식 활동, 후보자 이미지, 후보 스캔들, 후보 캠페인 전략, 다른 정당 및 후보 공방, 단일화
유권자	시민선거 반응, 시민단체 활동
판세	여론조사, 선거 전망

③ 기사 성격

기사 성격은 경성과 연성으로 분류하였고, 분류 기준은 김동윤, 구교태(2018)를 참고하였다.

〈표 2〉 기사 성격

분류	분석 내용
연성	폭로, 비방, 갈등, 후보자 이미지(가족, 후보의 과거 등 개인사), 경마경쟁, 선거 전망, 선거 결과, 게임, 단순 후보자/정당/국회의 유세/행보/활동
경성	이슈 정책, 지역적 시각, 사건, 후보 단일화, 선거참여(질서), 정치사회적 반향

④ 보도 정향

보도의 감정적 논조를 나타내는 보도 정향은 선행연구(박정의, 2008)를 참고해 기사가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내용일 때는 ‘긍정’, 비우호적일 때에는 ‘부정’, 객관적 사실만 제공한 경우에는 ‘중립’으로 나누었으며, 전반적 기사 논조와 상관없이 단순히 이름만 언급된 경우에는 결측 처리했다.

⑤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개인적 성향 프레임

선행연구(Alexander & Anderson, 1993; Banwart & McKinney, 2005; Lee, 2013)를 참고해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기사들이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성향에 대해 어떤 프레임을 사용했는지 분석했다.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크게 여성적, 남성적, 중립적으로 분류하였고, 분석 기준은 단어로, 유목별로 해당 단어 및 유사 단어가 사용된 개수를 측정했다.

〈표 3〉 개인적 성향 프레임

분류	분석내용
여성적	모성/친절/부드러움, 감정적/감성적/공감/연민, 세련됨/외모 묘사(인상, 옷차림 포함), 야무짐/씩씩함, 완곡한/은유적/겸손
남성적	자신감/도전, 결단/결심/고집/소신, 투사/호전적/논쟁적/직설적, 이성적, 일꾼/적극적
중립적	윤리적, 성실함, 기타

⑥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보도 이슈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와 관련해 기사가 다루고 있는 주요 이슈를 전통적인 잣대에 따라 크게 여성적, 남성적, 중립적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Lee & Lim, 2016; Major & Coleman, 2008)의 이슈 분류를 참고해 분석유목을 구성했으며, 기존 분류 대상이 아니었던 코로나 19나 세월호 사태 같은 전사회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는 중성적 이슈에 추가하였다. 여성 후보자가 기사가 다루는 이슈와 무관하게 언급된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4〉 보도 이슈

분류	분석내용
여성적	보건/건강(코로나19예외)
	복지/가난/불평등
	가족/돌봄/노인/가정/육아/출산
	교육/아동
	시민권리 보호/소수자 권리(임금 격차, 낙태, 장애인)
	여성(페미니즘)/성폭력(N번방)
	환경(지구온난화, 이상 기후 등)
남성적	경제/비즈니스/세금/무역/부동산
	군사/국방/전쟁/참전용사/북한/외교
	과학/우주/항공/기술/IT
	개혁(e.g. 언론개혁, 검찰개혁, 적폐청산 등)
	테러/범죄
중성적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진료소 등)
	세월호, 촛불집회, 탄핵
	지역개발
	기타

(3) 코딩 및 신뢰도

내용 분석은 훈련받은 코더 2명이 사전 교육을 받고 참여했으며, 분석 초기 단계에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하며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분석 기준을 조율했다. 분석한 기사 수의 10%인 51건의 기사 분석 결과에 대해 Krippendorff's Alpha로 계산한 코더간 신뢰도는 기사 제목 언급 1.0, 기사 소재 .78, 기사 성격 .88, 보도 정향 .84, 개인적 성향 프레임 .77, 이슈 프레임 .79 등 전반적으로 .77에서 1.0 사이로 나왔다.

4. 연구 결과

1) 기간별 여성 후보자 관련 보도의 기사 제목 언급량

연구문제 1-1은 후보자 관련 기사들이 제목에 여성 후보자를 언급한 비율에 관한 것이었다. 총 509건의 기사 분석 결과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11.895$, $p<0.005$).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가 단독으로 제목에 언급된 기사는 20대 3.3%에서 21대 8.6%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기사 제목에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등장한 경우도 20대 8.7%에서 21대 14.9%로 증가했다. 그 결과 기사 제목에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가 언급된 전체 기사 비율은 20대 12%에서 21대 23.5%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표 5〉 기간별 제목 언급 비율

	20대 선거		21대 선거	
	빈도	기간 중 %	빈도	기간 중 %
언급 없음	212	88.0%	205	76.5%
단독	8	3.3%	23	8.6%
공동	21	8.7%	40	14.7%
전체	241	100%	268	100%

2)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 보도 관련성

연구문제1-2부터는 여성 후보자가 기사 중심내용과 별 관련 없이 단순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미 있게 언급된 경우에만 분석했다. 여성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기사들만 추출했지만, 간혹 기사의 주인공은 남성 후보자인데 기사 속에 여성 후보자가 기사 내용과 큰 관련 없이 언급된 기사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 당 지도부가 전국의 격전지를 방문해 유세를 펼쳤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당 대표는 어느 후보의 지역구인 어느 지역을, 원내대표는 어느 후보와 어느 후보가 맞붙은 어느 지역을 방문했다’는 식으로 여러 후보들 중 하나로 여성 후보자가 거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기사의 소재나 성격 등이 여성 후보자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여성 후보자가 좀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사와 차별화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 단순 언급은 20대에 전체 기사의 43.6%에서 21대 37.7%로 줄었으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chi^2(1)=1.822, p>.05$). 단순 언급을 제외한 기사 수는 20대 136건, 21대 167건으로 총 303건이었다.

〈표 6〉 기간별 보도 관련성 비율

	20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체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전체 중%
단순 언급	105	43.6%	101	37.7%	206	40.5%
관련 있음	136	56.4%	167	62.3%	303	59.5%
전체	241	100.0%	268	100.0%	509	100.0%

3) 기간별 여성 후보자 관련 뉴스 소재

연구문제2는 여성 후보자 관련 기사가 다루고 있는 소재에 대한 질문이었다. 분석 결과, 20대에는 정당-후보자-판세-유권자-선거-이슈/정책 순으로 많았던 반면, 21대에는 후보자-이슈/정책-정당-판세-선거-순으로 많았다. 후보자에 대한 기사 비율이 26.5%에서 49.7%로 크게 상승했고, 이슈/정책 비율도 5.9%에서 18.6%로 3배 이상으로 높아진 반면, 정당에 관한 기사 비율은 28.7%에서 15%로 크게 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 등 판세에 관한 기사 비율도 26.5%에서 8.4%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카이제곱검정 결과 20대 선거와 21대 선거의 기사 소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2.250$, $p < 0.001$).

〈표 7〉 기간별 기사 소재 비율

		20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빈도	기간 중 %	빈도	기간 중 %
선거	선거 참여	4	2,9%	4	2,4%
	선거 법, 제도 개정	4	2,9%	4	2,4%
	선거 합계	8	5,9%	8	4,8%
이슈	이슈 정책	0	0,0%	17	10,2%
	공약 실현	8	5,9%	14	8,4%
	이슈 합계	8	5,9%	31	18,6%
정당	정당 캠페인 전략	1	0,7%	7	4,2%
	다른 정당 및 후보 공방	5	3,7%	5	3,0%
	정당 내 갈등	18	13,2%	11	6,6%
	정당 간 연합	8	5,9%	0	0,0%
	정당 행보	7	5,1%	2	1,2%
	정당 합계	39	28,7%	25	15,0%
후보자	후보 등록	4	2,9%	6	3,6%
	후보 공약 정책	1	0,7%	4	2,4%
	후보 경력 배경	1	0,7%	10	6,0%
	후보 공식 활동	5	3,7%	6	3,6%
	후보자 이미지	0	0,0%	4	2,4%
	후보 스캔들	11	8,1%	11	6,6%
	후보 캠페인 전략	12	8,8%	11	6,6%
	다른 정당 및 후보 공방	2	1,5%	11	6,6%
	단일화 관련 기사	0	0,0%	20	12,0%
유권자	후보자 합계	36	26,5%	83	49,7%
	시민 선거 반응	4	2,9%	3	1,8%
	시민 단체 활동	5	3,7%	2	1,2%
	유권자 합계	9	6,6%	5	3,0%
판세	여론조사	24	17,6%	4	2,4%
	선거 전망	12	8,8%	10	6,0%
	판세 합계	36	26,5%	14	8,4%
기타	기타	0	0,0%	1	0,6%
전체		136	100,0%	167	100,0%

4) 기간별 여성 후보자 관련 보도 뉴스 프레임

〈표 8〉 기간별 뉴스 프레임

		20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빈도	기간 중%	빈도	전체 중%
여성	폭로/비방/갈등	19	14.0%	32	19.2%
	후보자 이미지	18	13.2%	14	8.4%
	경마식/선거 전망/전략/계입	41	30.1%	25	15.0%
	단순 후보자/정당/ 국회의 유세/행보/활동	19	14.0%	27	16.2%
	여성 합계	97	71.3%	98	58.7%
경성	이슈 정책	11	8.1%	32	19.2%
	지역적 시각	3	2.2%	10	6.0%
	사건	5	3.7%	16	9.6%
	후보 단일화	10	7.4%	4	2.4%
	선거참여/질서	8	5.9%	4	2.4%
	정치사회적반향	2	1.5%	3	1.8%
	경성 합계	39	28.7%	69	41.30%
전체	136	100.0%	167	100.0%	

연구문제1-3(기사 성격)의 결과는 두 선거 모두에서 여성 기사가 우세했지만 20대에는 71.3% 대 28.7%로 차이가 컸던 반면, 21대에는 58.7% 대 41.3%로 여성 기사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아졌다($\chi^2(1)=5.221, p < 0.05$). 경성 기사에서 여성 후보자가 의미 있게 언급되는 경우가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프레임은 20대에서는 '경마식 선거 전망(30.1%)'이었고 '폭로/비방(14%)'과 '단순 후보자/정당 유세 활동(14%)'이 동률로 뒤를 이었다. 21대에는 '폭로/비방(19.2%)'과 '이슈/

정책(19.2%)'이 동률이었고, '단순 후보자/정당 유세 활동(16.2%)'이 3위, '경마식 선거 전망(15%)'이 4위였다. 전반적으로 경마식 선거 전망 기사가 절반으로 줄고, 후보자 과거사, 가족 등 이미지에 관한 기사가 19.2%에서 8.4%로 줄었고, 이슈/정책 관련 기사가 8.1%에서 19.2%로 늘어났다. 반면, 폭로/비방전에 대한 보도도 14%에서 19.2%로 늘었다.

5) 기간별 여성 후보자 보도 정향

〈표 9〉 기간별 보도 정향 비율

	20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긍정	4	2.9%	14	8.4%
중립	95	69.9%	100	59.9%
부정	37	27.2%	53	31.7%
전체	136	100.0%	167	100.0%

연구문제1-4는 보도 정향에 대한 질문이었다. 긍정, 중립, 부정 보도 가운데 20대와 21대 모두 중립-부정-긍정 보도 순으로 많았다. 중립 보도는 20대 69.9%에서 21대 59.9%로 감소했고 부정적 보도는 20대 27.2%, 21대 31.7%로 소폭 증가, 긍정적 보도는 20대 2.9%에서 21대 8.4%로 증가했다. 대부분 중립적 논조가 많은 이 결과는 김동윤, 구교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중립적 선거 보도 원칙의 영향으로 보인다. 카이제곱검정 결과 20대와 21대의 논조 차이는 긍정 보도의 비율에서만 경계성 유의도를 보였으며 중립 보도와 부정 보도의 비율에는 두 선거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5.413, p=0.067$).

6) 기간별 여성 후보자 개인적 성향 프레임

〈표 10〉 기간별 개인적 성향 프레임 비율

		20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여성적	모성/친절/부드러움	2	1,5%	6	3,6%
	감정적/감성적/세심함	2	1,5%	5	3,0%
	세련됨/외모 묘사	0	0,0%	1	0,6%
	야무짐/씩씩함	1	0,7%	1	0,6%
	완곡/겸손	0	0,0%	5	3,0%
	여성적 합계	5	3,7%	18	10,8%
남성적	자신감/도전	7	5,1%	10	6,0%
	결단/결심/고집/소신	2	1,5%	13	7,8%
	투사/호전적/논쟁적/직설적	2	1,5%	27	16,2%
	일꾼/적극적	3	2,2%	5	3,0%
	남성적 합계	14	10,3%	55	33,0%
중성적	윤리적/성실함/기타	117	86,0%	94	56,3%
전체		136	100,0%	167	100,0%

다음으로 성역할 이론에 근거해 후보자 성향에 대한 프레임(연구문제1-5)을 알아보았다. 중성적 성향이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20대 86%, 21대 56.3%로 과반수였다. 20대에 비해 21대에 중성이 아닌 특정 성별 성향 프레임이 쓰인 경우가 14%에서 43.7%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 카이제곱검정 결과 20대와 21대의 여성적, 남성적, 중성적 성향의 비율 차이는 유의했다($\chi^2(2)=31.374, p < .001$).

여성적 또는 남성적 성향 프레임이 쓰인 경우만 놓고 보았을 때는 두 선거 모두에서 남성적 성향이 여성적 성향보다 많이 언급되었다.

20대에는 여성적 성향 26.3% 대 남성적 성향 73.7%였고, 21대에는 여성적 성향 24.7% 대 남성적 성향 75.3%로 전반적으로 남성적 성향 프레임이 여성적 성향 프레임보다 3배 정도로 많이 쓰였다. 남성적 프레임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프레임은 20대의 경우 '자신감' 프레임, '일꾼' 프레임 순으로 높았고, 21대에는 '강인한 투사' 프레임, '자신감' 프레임 순이었다. 여성적 프레임 중에는 20대와 21대 모두 '모성'과 '세심함' 프레임이 가장 많았으나 남성적 성향에 비해 선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7) 기간별 여성 후보자 보도 이슈

〈표 11〉 기간별 보도 이슈

		20대 국회의원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여성적	복지/가난/불평등	7	5.1%	7	4.2%
	가족/돌봄/노인/가정/육아/출산	0	0.0%	1	0.6%
	교육/아동	1	0.7%	1	0.6%
	시민권리 보호/소수자 권리	7	5.1%	15	9.0%
	여성/성폭력	0	0.0%	36	21.6%
	환경	1	0.7%	2	1.2%
	여성적 합계	16	11.6%	62	37.2%
남성적	경제/비즈니스/세금/무역/부동산	3	2.2%	8	4.8%
	군사/국방/전쟁/참전용사/북한/외교	1	0.7%	0	0.0%
	과학/우주/항공/기술/IT	0	0.0%	0	0.0%
	개혁	0	0.0%	5	3.0%
	테러/범죄	1	0.7%	0	0.0%
	남성적 합계	5	3.6%	13	7.8%
중성적	코로나19	0	0.0%	12	7.2%
	세월호, 촛불집회, 탄핵	1	0.7%	2	1.2%
	지역개발	6	4.4%	9	5.4%
	중성적 합계	7	5.1%	23	13.8%
기타		108	79.8%	69	41.3%
전체		136	100.00%	157	100.0%

다음으로 후보자와 관련해 다루는 이슈 프레임(연구문제1-6)을 살펴 보았다. 기사에서 다뤄진 이슈가 중성적이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20대 84.9%, 21대 55.1%였다. 20대에 비해 21대에 특정 성별 성향 이슈 프레임이 쓰인 경우가 15.2%에서 44.9%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다. 남성적, 여성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슈가 등장한 기사들만 놓고 보았을 때는 성향 프레임과 반대로 여성적 이슈 프레임이 남성적 이슈 프레임보다 우세했다. 20대에 23.8% 대 76.2%로 여성적 이슈가 3배 정도 많았고, 21대에는 17.3% 대 82.7%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카이제곱검정 결과 20대와 21대 결과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2)=30.386$, $p < .001$). 여성적 또는 남성적 이슈의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슈 세부유목별로 빈도를 본 결과, 20대에선 복지 이슈와 시민/소수자 권리 이슈 순으로 많았고, 21대에선 페미니즘/성폭력 이슈, 경제 이슈 순으로 많았다. 강남역 사건, 미투 운동, n번방 사건 등의 영향으로 여성 후보들의 여성 이슈 언급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8) 언론 성향별 여성 후보자 기사 제목 언급량

〈표 12〉 언론 성향별 제목 언급 비율

	20대 선거기간				21대 선거기간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언급 없음	90	81.1%	122	93.8%	96	67.6%	109	86.5%
제목 언급	21	18.9%	8	6.2%	46	32.4%	17	13.5%
전체	111	100.0%	130	100.0%	142	100.0%	126	100.0%

다음으로는 연구문제2를 통해 연구문제1의 결과에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2-1의 경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 언론은 여성 후보자 이름이 단독(9.9%) 또는 공동(22.5%)으로 제목에 들어간 기사가 32.4%인 반면, 진보 언론은 단독(7.1%), 공동(6.3%) 합쳐 13.5%였다. 단독 언급과 공동 언급을 합쳐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21대에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제목에 여성 후보자를 언급한 비율의 차이는 유의했다($\chi^2(1)=13.266, p < 0.001$). 여성 후보자 이름이 제목에 들어간 비율은 20대 선거 당시에도 보수 언론이 18.9%, 진보 언론이 6.2%로 보수 언론에서 세 배 정도로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chi^2(1)=9.217, p < 0.005$), 21대에 보수, 진보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제목 언급 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9) 언론 성향별 여성 후보자 관련 뉴스 소재

〈표 13〉 언론 성향별 뉴스 소재 비율

	20대 선거기간				21대 선거기간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선거	5	4.5%	12	9.2%	6	4.2%	6	4.8%
이슈/정책	5	4.5%	4	3.1%	16	11.3%	19	15.1%
정당	39	35.1%	47	36.2%	29	20.4%	36	28.6%
후보자	30	27.0%	30	23.1%	73	51.4%	41	32.5%
유권자	4	3.6%	7	5.4%	3	2.1%	5	4.0%
판세	28	25.2%	30	23.1%	15	10.6%	19	15.1%
전체	111	100.0%	130	100.0%	142	100.0%	126	100.0%

21대 선거 보도의 기사 소재(연구문제2-2)를 분석한 결과,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 모두 후보자-정당-이슈/정책-판세-선거-유권자 순으로 많았다. 보수 언론이 후보자 관련 기사 비율이 전체의 51.4%로 진보 언론(32.5%)보다 높았으나 카이제곱검정 결과 후보자 관련 부분에서 경계성 유의성만 나타났고($\chi^2(5)=10.045, p=.074$) 전반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대에는 보수, 진보 언론 모두 정당 소재의 기사(보수 35.1%, 진보 36.2%)가 후보자 소재의 기사(보수 27%, 진보 23.1%)보다 많았다. 정당-후보자-판세-선거까지 순서가 같고, 보수 언론은 이슈/정책이 유권자보다 많았고, 진보 언론은 유권자가 이슈/정책보다 많았다. 전반적으로 20대에 비해 21대에 정당 관련 기사가 줄고 후보자 관련 기사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10) 언론 성향별 여성 후보자 관련 뉴스 프레임

〈표 14〉 언론 성향별 뉴스 프레임 비율

	20대 선거				21대 선거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연성	55	80.9%	42	61.8%	61	70.1%	43	53.8%
경성	13	19.1%	26	38.2%	26	29.9%	37	46.3%
전체	68	100.0%	68	100.0%	87	100.0%	80	100.0%

연성 기사와 경성 기사의 비율(연구문제2-3)은 21대 선거 당시 보수 언론은 70.1% 대 29.9%로 연성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 진보 언론은 53.8% 대 46.3%로 경성 기사와 연성기사의 차이가 적었다. 이

차이는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했다($x^2(1)=9.790, p < .005$). 20대에는 보수 언론이 80.9% 대 19.1%, 진보 언론이 61.8% 대 38.2%였다. 20대에도 진보 언론의 연성 기사 비율이 보수 언론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지만($x^2(1)=6.076, p < .05$)였지만, 그래도 둘 다 연성 기사가 경성 기사보다 더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1대에 진보 언론이 여성을 경성 기사에 언급한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11) 언론 성향별 여성 후보자 보도 정향

〈표 15〉 언론 성향별 보도 정향 비율

	20대 선거				21대 선거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긍정	2	2.9%	2	2.9%	7	8.0%	6	7.5%
중립	51	75.0%	44	64.7%	52	59.8%	46	57.5%
부정	15	22.1%	22	32.4%	28	32.2%	28	35.0%
전체	68	100.0%	68	100.0%	87	100.0%	80	100.0%

선거 보도 논조(연구문제2-4)는 20대, 21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모두 중립적-부정적-긍정적 순서로 많았다. 중립적 논조는 20대에 (보수 75.0%, 진보 64.7%) 비해, 21대에는 (보수 59.8%, 진보 57.5%)로 줄었다.

부정적-긍정적 논조의 비율은 20대에 보수 언론이 22.1%-2.9%였고, 진보 언론이 32.4%-2.9%였고, 21대에 보수 언론이 32.2%-8.0%, 진보 언론이 35.0%-7.5%였다. 모든 언론에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모두 증가했으며, 보수, 진보 간 차이는 20대($x^2(2)=3.381, p > .05$)나 21대($x^2(2)=.413, p > .05$)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언론에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모두 증가했으며, 보수, 진보 간 차이는 20대($\chi^2(2)=3.381, p>.05$)나 21대($\chi^2(2)=.413, p>.05$)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12) 언론 성향별 여성 후보자 개인적 성향 프레임

〈표 16〉 언론 성향별 개인적 보도 프레임 비율

	20대 선거				21대 선거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여성적	3	4.4%	2	2.9%	13	14.9%	5	6.3%
남성적	6	8.8%	8	11.8%	31	35.6%	24	30.0%
중성적	59	86.8%	58	85.3%	43	49.4%	51	63.7%
전체	68	100.0%	68	100.0%	87	100.0%	167	100.0%

21대 선거 보도에서 보수·진보 언론 모두 중성적 성향 프레임이 가장 많았고(보수 49.4%, 진보 63.7%), 여성적-남성적 성향 프레임만 비교했을 때에는 양쪽 모두 남성적 성향 프레임을 여성적 성향 프레임 보다 많이 사용했다. 여성적 성향과 남성적 성향 프레임을 사용한 비율은 보수 언론이 14.9%대 35.6%, 진보 언론이 6.3% 대 30%로, 진보 언론이 보수 언론보다 남성적 성향 프레임을 사용한 비율이 더 높았지만, 카이제곱검정 결과로는 경계성 유의도만 나타났다($\chi^2(2)=4.842, p>.05$).

20대에도 진보 언론(2.9% 대 11.8%)의 여성적·남성적 성향 프레임의 비율이 보수 언론(4.4% 대 8.8%)보다 높았지만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x^2(2)=.494, p > .05$). 20대에는 중성적 성향 프레임의 비율이 훨씬 높아(보수 86.8%, 진보 85.3%), 21대에 여성적, 혹은 남성적 성향의 프레임 사용이 보수, 진보 언론 모두에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세부 유목별로는 보수 진보 언론 모두에서 강인한 투사 프레임과 자신감 프레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13) 언론 성향별 여성 후보자 개인적 보도 이슈

이슈 프레임도 성향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여성적, 남성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중성적 이슈가 가장 많았다(보수 67.8%, 진보 56.3%). 그러나 성향 프레임과 달리 남성적보다 여성적 이슈 프레임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적-남성적 이슈 비율(연구문제2-6)은 21대 보수 언론에서는 19.5%–12.6%로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진보 언론에서는 41.3%–2.5%로 여성적 이슈 프레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카이제곱검정 결과,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간 여성-남성-중성적 이슈의 비율 차이는 유의했다($x^2(2)=25.976, p < .001$).

〈표 17〉 언론 성향별 개인적 보도 이슈

	20대 선거기간				21대 선거기간			
	보수		진보		보수		진보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빈도	기간 중%
여성적	3	4.4%	13	19.1%	17	19.5%	33	41.3%
남성적	2	2.9%	3	4.4%	11	12.6%	2	2.5%
중립적	63	92.6%	52	76.5%	59	67.8%	45	56.3%
전체	68	100.0%	68	100.0%	87	100.0%	80	100.0%

20대에서도 중성적-여성적-남성적 순으로 동일했지만, 보수, 진보 언론 모두 중성적 이슈 비율이 더 높았고(보수 92.6%, 진보 76.5%)지만, 여성적-남성적 이슈 비율이 보수 4.4%-2.9%, 진보 19.1%-4.4%로 진보 언론사에서 여성적 이슈 프레임이 더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21대와 유사하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2)=7.502$, $p<.05$). 20대에서 21대로 오면서 여성 후보들이 여성적 이슈와 관련해 언급된 비율이 보수 언론에서는 줄어든 반면 진보 언론에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5. 결과 요약 및 논의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020년 21대 선거까지 4년이 흐르는 동안 여성 관련한 많은 이슈와 사건이 있었던 만큼, 언론의 선거 보도 행태에도 희망적인 신호들이 발견되었다.

일단 여성 후보자가 거명된 제목의 비중이 21대에 20대의 크게 늘었다. 전반적으로 20대에 비해 21대에 여성 정치 후보자들이 중심이 된 기사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기사에서 주변인물로 단순 언급된 비율도 20대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소재면에서 이슈/정책 비율이 5.9%에서 18.6%로 3배 정도로 높아진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20대에 가장 낮은 순위로 다루어진 소재였던 이슈/정책이 21대에는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진 소재였다. 당시 코로나19와 n번방 사건 등 특정 이슈가 주요 화두였던

까닭도 있지만, 여성 후보자들이 이슈/정책과 관련해 많이 인용되거나 거명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이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게 아니라 이슈/정책과 관련한 기사에서 중심 인물로 부각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성-경성 기사 비율면에서 20대에 비해 21대에 연성 기사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경마식 판세 기사의 비율이 줄어든 것도 희망적이다. 비록 중립적, 부정적 논조에 비해 비율은 크게 낮았지만 여성 후보가 언급된 기사들이 긍정적 논조를 띠는 경우도 20대에 비해 21대에 유의하게 증가했다. 폭로/비방 기사와 단순 유세 기사가 늘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마식 보도나 후보자 이미지 관련 기사가 줄고 이슈/정책 기사가 늘어나 여성 후보 관련 보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 근거한 이슈 프레임 분석 결과는 주로 외국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와 국내 선거 보도를 비교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여성 후보자들이 남성적 이슈보다 여성적 이슈와 관련해 언급된 경우가 많은 데에서 외국 선행 연구에 드러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0대와 21대 선거 보도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성향 프레임에 있어서 여성 후보자들이 여성적 성향보다 오히려 남성적 성향으로 설명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발견이다. 이는 언론이 여성을 묘사할 때 여성적 성향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영미권 선행 연구들과 배치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언론은 여성 후보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신감'을 강조하는 설명을 많이 했고 21대에는 남성적 성향 중에서도 특히 남성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호전적 투사' 프레임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여성적 이슈와 남성적 성향이 조합된 위의 결과는 두 선거 기간 동안 복지, 소수자, 성폭력 등 여성적으로 분류되는 이슈가 많이 불거졌고, 여성 후보들이 이 같은 문제에 목소리를 높인 한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인함과 투지,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성향 프레임 자체는 늘었지만 여성 후보자를 정치인이 아닌 여성의 이미지로 고착시키는 여성적 성향 프레임의 비율은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흔히 남성적, 여성적이라고 칭해지는 성향 사이에 객관적 우월이나 절대적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정치인들이 여성이라고 약하게 보는 불이익을 극복하고 남성들과 경쟁하기 위해 강하고 투쟁적인 언행을 보이는 사례가 지난 10년 사이 많이 발견되었는데(Lee, 2013; Lee & Lim, 2016), 이 같은 경향이 언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특정 성향이나 이슈 프레임의 보도가 모든 여성에게 유리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개별적 맥락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과거 언론이 실제 성향과 무관히 관습적으로 여성 후보를 여성적 프레임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는 소셜미디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여성들 스스로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그대로 기사에 인용되는 일이 많아진 면이 있다. 여성 후보자가 스스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 개인적 성향 묘사는 기자의 시각을 반영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성/친절/부드러움’이나 ‘감정적/감성적/세심함’ 같은 성향은 정치인을 묘사할 때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후보 본인이 강조하지 않은 한 대상이 여성이기에 기자가 관습적으로 사용한 묘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슈의

경우 해당 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의제가 되느냐, 소속 정당이 어떤 이슈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후보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이슈보다 성향 프레임에서 언론의 고정관념이 더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슈의 경우에도 지구 온난화, 코로나19, n번방 사건 등으로 갈수록 환경, 보건복지, 성폭력 등 여성적 이슈가 중요한 국가적 의제가 되고 있는 만큼 남녀를 떠나 여성적 이슈와 관련해 언급된 것을 부정적이라고 볼 순 없다. 또한 단순히 많은 여성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여성적 이슈를 강조하는 민주당, 정의당 소속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여성 후보자들이 경제, 외교, 남북관계 등 남성적으로 분류되는 이슈들 관련해서 점차 발언 영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면에서 20대에 비해 21대에 남성적 이슈 대 여성적 이슈의 비율 차이가 줄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만하다.

물론 분석 결과 아쉬운 점들도 눈에 띄었다. 비율은 낮아졌지만 21대에도 여성 후보자들이 언급되는 기사 열 건 중 여섯 건은 흥미 위주의 연성 기사라는 점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여성 후보가 폭로/비방/갈등과 관련해 언급된 기사가 21대에 들어서 더 늘어난 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성들이 언론에 노출되기 위해선 폭로/비방전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는 잘못된 교훈을 남길 수도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21대 선거 당시 후보자 관련 기사 비율이 상승한 것은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후보 간의 공방이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 후보자 이름이 언급된 기사만 추출한 결과여서 전체 선거보도를 분석한 선행 연구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1대 기사 소재면에서

후보자 관련 기사가 정당이나 정책 기사보다 우세한 것은 김동윤, 구교태(2018)의 지상파 방송 뉴스 분석과는 일치하고, 정당 관련 기사의 우세를 지적했던 김춘식 등(2012), 이종혁(2017)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다. 21대에 이슈/정책 소재 기사가 늘어난 배경에는 선거 기간 동안 코로나19, n번방 등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대 선거 내내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의 영향으로 정당 관련 기사가 유난히 많았기에 21대에 상대적으로 정당 기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정당 기사가 줄고 후보자 기사가 늘어난 배경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선 후속 연구에서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20대와 21대 여성 후보자 관련 보도에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의 차이가 있는지 연구문제2를 통해 살펴 본 결과, 어느 한쪽이 눈에 띄게 여성 후보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기사 소재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제목에 여성을 언급하는 비율이나, 중립적 논조나 긍정적 논조로 보도한 비율은 보수 언론이 진보 언론보다 더 높았다. 반면 여성 후보자를 경성 기사에 등장시키거나 남성적 성향으로 묘사한 기사 비율은 진보 언론이 보수 언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성적 이슈와 여성적 이슈의 비율은 보수 언론에선 비슷했으나 진보 언론에서는 여성적 이슈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 정치 후보자에 대한 보도 행태에 있어서는 언론의 이념적 성향보다 해당 선거에 어떤 이슈, 어떤 인물이 부상해 주로 보도되었느냐 같은 시기적, 상황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 후보 관련 기사만 표본으로 분석한 이 연구 결과만으로 보수-진보 언론간 여성 보도 차이를 판단

할 수는 없으며 향후 연구자들이 비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신문만 분석한 결과이다 보니 방송이나 인터넷 언론에 까지 확대 해석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 후보자들이 언급된 기사들 가운데 표본을 추출하다 보니 선거 보도 전수 조사 결과와 병렬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여성 후보 관련 보도를 남성 후보 관련 보도와 상대적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전체 기사 중 비중을 놓고 20대와 21대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라 이 결과로 언론의 여성 차별 유무를 판단하는 것도 비약이 될 수 있다. 분석 결과가 여성 정치인뿐 아니라 정치나 선거, 정치인을 다루는 언론의 전반적 태도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대와 21대에는 출마한 후보군과 정당 구도, 주요 이슈 등 상황적 차이가 있는 만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 동안 발생한 사건들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에도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가 주목하지 않은 제3의 요인이 주요 변인으로 기능했을 가능성도 있다. 방법론적으로 21대에는 빅카인즈를 통해 모두 추출한 반면, 20대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를 두 언론사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해 추출한 것이 전체 데이터나 언론사 비교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검색 당시 여성 후보가 언급된 기사 수가 20대에는 569건, 21대에는 731건이었지만 이 역시 추출 방법상의 차이 때문에 기사 수가 162건 증가했다고 확언할 수 없다. 또 다른 한계점은 보도가 일부 인지도 높은 후보들에게 편중되는 면이 있다 보니 전반적인 여성 후보에 대한 보도 태도라기보다는 몇몇 여성들에 대한 보도 태도가 과대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 후보들이 어떤 성향이며, 어떤 정당

소속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이슈를 강조했는지 등이 모두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로서 후보 한명 한명의 특성이나 시대적 상황을 질적으로 면밀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결과 해석 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성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기존에 없었던 규모의 종합적인 분석을 했다는 점, 20대와 21대 보도 및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체계적으로 비교했다는 점에 본 논문의 기여도가 있다. 주로 영미권에서 발전한 젠더 이론과 다양한 선행 연구 결과가 국내 상황에 적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론을 확장하는 효과도 있다. 앞으로 방송과 인터넷 언론을 포함해 더 큰 규모의 언론 데이터를 분석한 후속 연구들이 이 연구가 발견한 그림을 좀 더 확장 및 구체화시키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사 중심으로 분석했지만 후속 연구는 후보자 중심으로 정당과 경력(초선/재선 등) 등을 고려해 언론 노출 정도 및 당선 여부와와의 관계를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지만 의회 내 여성 비율은 아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 확대는 절실한 시대적 과제다. 선거 출마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성차별적인 보도는 여성에 대한 기존 고정관념과 소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Van der Pas & Aaldering, 2020), 특히 선거 보도는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에 전통적 성 역할 고정관념을 초월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대로라면 언론 보도는 20대와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이 분명 진일보했다. 그러나 4년간 여러 가지 사

건과 시민운동을 통해 높아진 사회적 인식과 성 역할의 변화를 담아내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면도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기치로 삼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의 선거 보도인 만큼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자사 보도 양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데 실무적으로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강주현 (2020).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당호감도와 여성 정치인 평가: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3권 1호, 1~32.
- 김동윤·구교태 (2020).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방송뉴스: 지상파와 중편 선거보도의 형식, 내용, 영상요소 및 프레임의 중심으로. 『언론과 학연구』, 20권 1호, 5~48.
- 김세은·홍남희 (2019). 미투 운동(#Metoo) 보도를 통해 본 한국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사 조직 문화: 여성기자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34권 1호, 39~88.
- 김영옥·김위근 (2007). 「미디어 선거 와 그 한계: 17대 대선 보도 분석」. 한국언론재단.
- 김정아·채백 (2008). 언론의 정치 성향과 프레임: '이해찬 골프'와 '최연희 성추행'사건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1권 1호, 232~267.
- 김춘식·양승찬·이강형·황용석. (2012). 「신문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보도 내용분석」 (조사분석 12-16).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훈순 (1997). 텔레비전 뉴스 속의 성의 역할. 『한국방송학보』, 9호, 147~178.
- 김훈순·김미선 (2008). 여성 담론 생산의 장(場)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244~270.
- 박정의 (2008). 여성 정치인에 대한 방송보도 분석-여성성프레임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1호, 99~122.
- 손영준·홍주현. (2018). TV의 성범죄보도 연구: 뉴스의 주목, 정보 공개,

- 귀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2권 3호, 31~68.
- 양승찬 (2007).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와 그 보도에 대한 이슈 고찰.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1호, 83~119.
- 양정혜 (2002). 대중매체와 여성 정치인의 재현. 『한국방송학보』, 46권 2호, 452~484.
- 윤영민·김경희 (2008). 텔레비전 뉴스의 대통령 후보 경선 보도 내용분석. 『한국방송학보』, 22-4호, 201~236.
- 이서현·최낙진 (2021). 정파성과 취재기자의 성별에 따른 정보원 활용 분석 : 안희정 미투 사건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60권, 129~178.
- 이중현 (2019). '트랜스 아이덴티티'스토리텔링으로 분석한 한국영화 여성 캐릭터 연구 -영화 <친절한 금자씨>와 <마더>를 중심으로 -.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15권, 209~229.
- 이준호 (2015). 헤드라인 저널리즘: 신문과 포털 기사제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9권 1호, 249~280.
- 이현출 (2020). 21대 총선과 여성. 『젠더리뷰』, 57권, 4~16.
- 정현옥·김선남 (2012). 여성정치인 관련 뉴스보도 수용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6권, 153~181.
- 하누리 (2018). 미투 이후 : 대학생의 페미니즘 정보습득, 지지도와 정치인식, 정치참여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483~499.
- 함승경·최지명·김영옥 (2020). 언론 보도의 여성 혐오 그리고 남성 혐오 분석: 언어 네트워크와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합. 『홍보학 연구』, 23권 6호, 24~51.
- 허명숙 (2007). 전문직 여성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7권, 5~45.
- 현경미, 김원용 (2005). 언론의 여성 정치인 관련 보도 프레임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3호, 38~72.
- 홍지아 (2009).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 중앙일보와 한겨레의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3권 5호, 458~498.
- 홍지아 (2017). 젠더화된 폭력에 대한 뉴스 보도: 4개 언론사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의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3권, 186~218.

- 4.15 총선: 여성의원 57명 역대 '최다 당선' ... 여전히 OECD 최하위권. (2020, 4. 16), BBC.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2310044>
- Aaldering, L., van der Meer, T., & Van der Brug, W. (2018). Mediated leader effects: The impact of newspapers' portrayal of party leadership on electoral suppor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3(1), 70~94.
- Alexander, D., & Andersen, K. (1993). Gender as a factor in the attribution of leadership trait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6, 527~545.
- Banwart, M., & McKinney, M. (2005). A gendered influence in campaign debates? Analysis of mixed-gender United States Senate and gubernatorial debates. *Communication Studies*, 56(4), 353~373.
- Banwart, M. C., Bystrom, D. G., & Robertson, T. (2003). From the primary to the general elec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candidate media coverage in mixed-gender 2000 races for governor and US Senat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5), 658~676.
- Daughton, S. M. (1994). Women's issues, women's place: Gender-related problems in presidential campaigns. *Communication Quarterly*, 42(2), 106~119.
- Devitt, J. (1999). Framing gender on the campaign trail: women's executive leadership and the press. Washington, DC: The Women's Leadership Fund.
- Eagly, A. H. (199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comparing social role theory and evolutionary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2(12), 1380~1382.
- Eagly, A. H., & Karau, S. J. (2002). Role congruity theory of prejudice toward female leaders. *Psychological Review*, 109(3), 573~598.
- Everitt, J., Best, L. A., & Gaudet, D. (2016). Candidate gender, behavioral style, and willingness to vote: Support for female candidates depends on conformity to gender norm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0(14), 1737~1755.

- Gidengil, E., & Everitt, J. (1999). Metaphors and misrepresentation: Gendered mediation in news coverage of the 1993 Canadian leaders' deb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4(1), 48~65.
- Gidengil, E., & Everitt, J. (2000). Filtering the female: Television news coverage of the 1993 Canadian leaders' debates. *Women & Politics*, 21(4), 105~131.
- Gidengil, E., & Everitt, J. (2003). Talking tough: Gender and reported speech in campaign news coverage. *Political Communication*, 20, 209~232.
- Heldman, C., Carroll, S., & Olson, S. (2005). "She brought only a skirt": print media coverage of Elizabeth Dole's bid for the Republican presidential nomin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22(3), 315~335.
- Hooghe, M., Jacobs, L., & Claes, E. (2015). Enduring gender bias in reporting on political elite positions: Media coverage of female MPs in Belgian news broadcasts (2003-2011).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0(4), 395~414.
- Huddy, L., & Terkildson, N. (1993a). Gender stereotypes and the perception of male and female candid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 119~147.
- Huddy, L., & Terkildsen, N. (1993b). The consequences of gender stereotypes for women candidates at different levels and types of offi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6(3), 503~525.
- Kahn, K. F. (1992). Does being male help?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candidate gender and campaign coverage on evaluations of U.S. Senate candidates. *Journal of Politics*, 54(2), 497~517.
- Kahn, K. F. (1994). The distorted mirror: Press coverage of women candidates for statewide office. *The Journal of Politics*, 56(1), 154~173.
- Kahn, K. F., & Goldenberg, E. N. (1991). Women candidates in the news: An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US senate campaign coverage. *Public Opinion Quarterly*, 55(2), 180~199.
- Lee, J. (2013). 'You know how tough I am?' Discourse analysis of US Midwestern congresswomen's self-presentation. *Discourse & Communication*, 7(3), 299~317.

- Lee, J., & Lim, Y. S. (2016). Gendered campaign tweets: the cases of Hillary Clinton and Donald Trump. *Public Relations Review*, 42(5), 849-855.
- McCombs, M., Llamas, J. P., Lopez-Escobar, E., & Rey, F. (1997). Candidate images in Spanish elections: Second-level agenda-setting effect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4), 703-717.
- Major, L. H., & Coleman, R. (2008).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gender in election coverage: What happens when the candidates don't fit the stereotypes? *The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19(4), 315-333.
- Meeks, L. (2012). Is she man enough? Women candidates, executive political offices, and news coverage. *Journal of Communication*, 62(1), 175-193.
- Norris, P. (1997). Women leaders worldwide: A splash of color in the photo op. In P. Norris (Ed.), *Women, media, and politics* (pp. 149-165).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chmitt-Beck, R. (1996). Mass media, the electorate, and the bandwagon. A study of communication effects on vote choice in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8(3), 266-291.
- Van der Meer, T. W. G., Hakhverdian, A., & Aaldering, L. (2016). Off the fence, onto the bandwagon? A large-scale survey experiment on effect of real-life poll outcomes on subsequent vote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8(1), 46-72.
- Van der Pas, D. J., & Aaldering, L. (2020). Gender differences in political media coverage: A meta-analysis. *Journal of Communication*, 70(1), 114-143.
- Witt, L., Pager, K. M., & Matthews, G. (1995). Candidates and policy in U.S. Senate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569-588.

투고일: 2021.08.02. 수정일: 2021.09.05. 게재확정일: 2021.09.15.

〈Abstract〉

How Female Political Candidates Are Portrayed
in The Media

: Focusing on The News Coverage of the 20th
and the 21st Parliamentary Elections

Jimin Park

(B.A.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achon University)

Jayeon L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Gachon University)

Betwee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16 and the 21st election in 2020, a number of women-related issues such as the Gangnam Station murder case, the #MeToo movement, and the nth room incident occurred in South Korea, and ‘women’ became a major discourse in society. Then what about the major media outlets’ news reports on female candidates during the two elections? The present study examined major newspapers’ news reports about female candidates during the 20th and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focusing on news headline, topic, type, tone, so-called “masculine/feminine trait” frame, and issue frame.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revealed some positive signs. For example, the percentage of headlines that included female candidates’ names increased while the percentage of simple mentions of names in the article decreased, indicating that women candidates became more prominent in election news reports. News about female candidates during the 21st election had more cases of hard news in a neutral or positive tone compared to news during the 20th election. Masculine trait frames such as “tough fighter” and “confidence” in descriptions of female candidates were more com-

monly found during the 21st election than in the 20th election. In terms of these trends, there were no consistent differences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newspapers.

keywords: women, candidate, media, framing, gender, election